



위트컴 은혜를 돌에 새긴 세 의인들

강석환·김재호·오상준씨, 장군 업적 발굴하고 세상에 알려

6.25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차드 위트컴 장군.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 대화재가 발생하자 군법에 저촉되는지 알면서도 구호물품을 풀어 이재민 3만명을 도운지 정확히 70년이 흘렀다. 전역 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대한민국과 부산의 재건을 위해 여생을 보내다 1982년 7월 12일 별세 후



평화공원에 설치된 위트컴 장군의 조형물.

UN기념공원에 안장된 지도 40년이 넘었다. 부산역전 대화재가 있고 이듬해 도움을 받은 이재민들이 장군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부산 모처에 공덕비를 세웠는데, 현재 흑백 사진 한 장만 남겨놓은 채 공덕비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알만한 위인으로 칭송받지만, 장군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0여 년 전에 불과하다. 60년 넘게 우리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장군의 업적과 스토리를 늦게라도 세상에 알린 이들이 강석환 위트컴희망재단 이사와 오상준 국제신문 총괄본부장 그리고 김재호 부산대 교수 세 사람이다.

위트컴 장군의 흔적 찾기의 시작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2010년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클리포드 스트로브스씨가 부인과 함께 용두산공원 부산타워를 방문했다. 이때 부산타워를 위탁 운영하던 강석환 이사의 눈에 이들 부부가 보였고

참전용사라는 말에 부산타워를 무료 입장시켜 주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클리포드씨는 1953년 11월부터 1년간 부산 미군44공병대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자신이 찍은 컬러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진 속에 위트컴 장군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위트컴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때였다. 사진 속의 위트컴이 밝혀지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강 이사는 마침 친분이 있던 오상준 국제신문 총괄본부장(당시 사회부 기자)에게 이 사진들과 위트컴 장군의 이야기를 전했고 이게 2011년 6월 25일자 국제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장군의 업적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김재호 교수는 윤인구 부산대 초대총장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자료를 들춰보다 위트컴 장군이 부산대 장전동 부지 50만평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김 교수는 3년의 조사와 수소문 끝에 위트컴 장군이 유엔기념공원에



오은택 남구청장, 위트컴 감사패 받아 오은택 남구청장이 평화공원 위트컴 장군 조형물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위트컴희망재단·위트컴 장군 조형물 건립 시민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시민 등 1만8,000여명의 성금으로 조성한 위트컴 장군 조형물은 기부제납 절차를 거쳐 남구가 관리하게 된다. 사진 왼쪽부터 위트컴 장군을 세상에 알린 강석환 위트컴희망재단 이사와 김재호 부산대 교수, 오은택 남구청장, 오상준 국제신문 총괄본부장, 구아진 유엔평화기념관 단장.

안장되어 있다는 것과 부인 한모숙 여사가 서울 용산의 어느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 강 이사 역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한 여사를 어렵게 만났다. 한 여사는 “수십년 간 아무도 남편을 찾지 않았는데 남편의 선행을 뒤늦게라도 알아주니 고맙다”며 강 이사의 손을 잡았다. 몇 해 뒤 강 이사는 아들이 없던 한 여사의 양자가 되었다.

서로 만날 일 없었던 강 이사와 김 교수는 이 일을 계기로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1년부터 장군의 기일인 7월 12일

유엔기념공원에서 매년 장군의 추모식을 열고 있다.

오 총괄본부장은 그간에 모은 위트컴 장군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22년 5월 책 ‘리차드 위트컴 : 6.25전쟁 폐허 속에서 핀 인류애’를 발간하면서 조형물 건립에 불을 지폈다. 이들 세 사람의 의기투합이 없었더라면 위트컴 장군의 업적은 지금도 망각의 강에 묻혀 있을지 모를 일이다. 위트컴 장군의 은혜를 돌에 새기는 데 꼬박 70년이 걸렸다.

김성한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 독자칼럼

주례사에 담긴 삶의 지혜

“야, OO 이 자숙 이혼 했다가네.”

점심나절 회사로 걸려온 초등학교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 근래 이혼이 흔해졌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이혼 소식은 충격이었다. 명문대 나오고 직장 뱅뱅해서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어쩌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보면 부부가 항상 웃는 얼굴로 인포부부처럼 대대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늘 전교 1등을 한다고 하던, 그래서 소위 아주 잘나갔던 친구여서 더욱 그랬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법.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던 듯 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까? 공상스런 상념에 젖다가 문득 결혼식장의 주례사를 떠올려 봤다. 부부가 살면서 주례사대로 살아온 이들이 맞이

나 될까. 주례사가 두고두고 외우고 새김찬한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거나 신세대 수준으로는 유지하고 뻥한 잔소리여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례사에서 가르치고 타일러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부부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 보통 부부들의 삶이다.

공자와 인도의 마하마라타 서사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사랑에 대해 남긴 말씀 중 우연처럼 표현까지 일치된 게 하나 있다고 한다. ‘내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야. 그대가 바라지 않고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고, 내가 원치 않는걸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이혼은 정말 없어질 것 같다. 이기현(대연동 주민)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

같이 일하는 직원이 퇴근 직전에 갑자기 사무실 캐비닛을 뒤져 붉은색 끈을 찾아 들고는 사라졌다.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하 2층에서 그 직원이 웬 종이박스 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나와 마주쳤다. 궁금해 뭐냐고 묻자 그냥 피식 웃으면서 “필요해서요”라고만 말했다. 나는 속으로 ‘아까 끈을 찾은 이유가 저거였구나’ 하면서 차를 몰고 지상으로 나갔다.

회사 정문을 나서던 중 회사 앞 길가 인도에서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와 함께 그 직원이 옆에서 있는게 보였는데 잠시 전 지하 2층 주차장내 회사 창고에서 꺼내 온 종이박스 묶음을 그 할머니 리어카에 싣고 있는게 아닌가. 나일론 끈으로 묶은 박스 봉지를 할머니 리어

카에 얹어 주자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허리 숙여 몇 번이나 했고, 이 직원은 멋쩍었는지 뒷통수를 만지며 같이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서야 이 직원이 사무실에서 붉은 끈을 들고 다닌 이유를 알았다. 이 친구는 회사에서 버려진 종이박스가 쓰러 기장으로 가기 전에 그걸 묶어 폐지수집 하는 할머니께 가져다 준 것이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 이 직원을 안아주고 싶을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그날 이후 이 직원이 다시 보였다. 남들에게 자신이 하는 이런 일 내색조차 하지 않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일하며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유병양(용호동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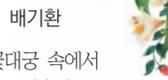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제 17회 오륙도 문학상

대상 대표작

한 편의 시를 쓴다



배기환

하얀 눈을 걷으니 그 속에 숨겨진 장미의 알몸에선 붉은 향기가 흐르고 목련의 알몸에선 흰 숨결이 흐른다
그래 장미야, 그리고 목련야
겨우내 칼날 같은 그 추위 견디며
얼마나 마음 시러했느냐

살갓이 찢어지는 세찬 폭풍우에 아픔을 겪고서야 비로소 웃기 시작하는 저 꽃망울들 그랴다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는 아름다운 아픔의 한송이나 마찬가지로
그동안 소식이 두절되었던 그에게 빨간 향기 그윽한 아픔 한 송이를 전하기로 하였다

잠시 침묵을 뛰어넘고 꽃대궁 속에서 은은하게 낮익은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분명 티베트의 어느 사찰에 선가
은은하게 들려왔던 심잉불 소리 같다
나는 읽던 성경을 덮고 그 음악에 취해 또 그에게 시 한 편을 쓴다

- 1997년 월간 《詩文學》등단
- 부산문인협회 사무처장, 시본과장 역임
- 시집 : 전생을 굶다1(2002), 전생을 굶다2(2003), 바람의 화석(2007), 견고한 생각(2012), 젊음의 징비록(2019), 시간은 기억의 수레를 끌고(2023)
- 수상 : 부산일보 해양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등

본상 대표작

인내의 무기질

홍중철

인내의 무기질은 영동하게도 보랏빛 향수鄉愁였다

도랑 같은 창자에 허기가 접힐 때마다
박달나무 절구통이 가난을 뺄라 분주하고

눈물에 밥 말아먹던 찰가난에도
삶의 이랑마다 아람이 보였다

인내하는 일이 우거지 덕장처럼
끈덕졌더라면 어땠을까

내 등은 빈 지게처럼 허전하다

우직하게 서서 바라보는 먼 산
지금도 어금지금이건만

둥이줄 같은 다짐들이
나의 황혼녘에 형광어져 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파꽃 같은 생을 詩로 아파보는 것이다

- 계간 <부산시인> 시 등단(2011), 월간 <문학도시> 수필 등단(2013)
- 한국문인협회, 사)부산문인협회, 사)부산시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경호문학회 회원, 경호문학상 수상
- 저서 : 나직한 대화, 김치꽃이 피었습니다. 백일홍 붉은 나절, 추파의 온도, 중얼거림의 돌

작가상 대표작



달이

김예순

해가 꼬리를 감춘 지도 한참이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 들려 몇 가지 일을 보고, 익숙한 롯데마트에 들려 장거리도 보고나니 저녁 시간이 다 되었다. 손자들이 겨울방학 중이라 오전에는 평상시 하는 방과 후 학습을 학교에서 하고, 오후 4시 30분경 학원에 갔으니 올 때가 다 되어 서둘러 버스를 탔다.

(중략)

집으로 오는 길 한겨울답게 쌀쌀한 바람이 계속 불어온다. 느닷없이 “할머니 저 달 좀 봐 달이 엄청 가늘어. 꼭 눈썹 같아.” 재혁이가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보니 초승달이 떠 있다. 여러 달빛이 불 밝힌 밝은 아파트와 아파트 벽면의 큰 나무와 너른 공터를 비추고 있다.

(중략)

지금은 이 학년과 사 학년이니 나뉘 독립심을 길러줄 겸해 “이제는 할머니가 챙기지 않더라도 너희들끼리 좀 알아서 학원에도 가고 하여라”했더니 작은 외손자 재혁이가 대뜸 “할머니 알았어. 이제 나도 십 대니까 알아서 할게.”한다. 십 대라는 말과 빠른 반응에 깜짝 놀라 순간 멍해졌다.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보다 참 오랫동안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몇 달 후 꽃피는 삼월이면 삼학년, 열 살이 되니 십 대가 확실하다. 그래 맞구나. 할머니는 이제 십 대의 손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기대를 걸어보기도 한다. 귤전에 들리는 소리, 향과 나는 십대, 엄마 아빠는 사십 대, 할머니는 칠십 대, 둘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들린다. 한겨울의 눈썹 달빛 아래 햇살처럼 쏟아지는 세대 타령을 하는 지금은 겨울방학 중이다.

- <시와 수필> 수필, 시 등단
- 부산문학인협회 부회장, 남구문인협회 이사, 부산수필문학협회 감사
- 부산수필문학협회 작가상, 영호남문인협회 작품상, 부산문학인협회 본상 등 수상
- 수필집 : 내 마음의 정원 • 시집 : 시 속에 피는 꽃, 윤희의 사랑편지

산악회	산행일시	산행장소	연락처
청산산악회	1월 7일(일)	덕유산 향적봉	010-5011-1571
우일산악회	1월 7일(일)	남해 금산	010-3557-2847
부산산오름산악회	1월 14일(일)	원주 치악산	010-7223-2277
대산산악회	1월 14일(일)	광주 무등산	010-9979-0702
아름다운동행	1월 14일(일)	덕유산 향적봉	010-3831-6774
용신산악회	1월 14일(일)	제천 작은동산	010-6763-6748
원부리산악회	1월 21일(일)	강천 채석봉	010-4564-7769
용호산악회	1월 28일(일)	진한 마이산	010-9497-4575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출>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